



## 신라사의 전개와 來住人(immigrants)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Immigrants in the Progress of Silla History

---

저자 (Authors)	권덕영 Kwon, Deok-young
출처 (Source)	<a href="#">신라사학보</a> , (50), 2020.12, 1-17 (17 pages) <a href="#">SILLASAHAKPO</a> , (50), 2020.12, 1-17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라사학회</a>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10837">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10837</a>
APA Style	권덕영 (2020). 신라사의 전개와 來住人(immigrants). 신라사학보 , (50), 1-1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5 12:5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사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사의 전개와 來住人(immigrants)\*

권덕영\*\*

- |                 |               |
|-----------------|---------------|
| I. 머리말          | IV. 來住 양상과 의미 |
| II. 移動, 移住, 來住  | V. 맺음말        |
| III. 외부인의 신라 내주 |               |

## 【국문초록】

인류의 역사는 인간 이동의 역사였다.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였다. 그런데 인간의 이동은 늘 역사의 변혁과 발전을 가져왔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서양 고대사회의 몰락, 근대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 중국 북방 유목민족의 주기적인 증원 진출과 征服王朝의 출현 등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한국고대사회에서도 외부 세계와의 주민 이동이 활발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동, 곧 來住(immigration)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조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移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외부인의 신라 내주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여 來住人들의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 시도하였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의 주민 이동은 사회변혁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의 역사가 고조선 유민의 신라 내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신라사에서도 주민 이동과 사회변혁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 그리고 파사적으로 이어진 외부인의 신라 내주는 노동력 확충과 군사력 증강, 불교 수용과 예악의 발달, 그리고 새로운

\* 이 논문은 2020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역사관광외교학부 교수

주요 논저 : 2015, 『한국의 역사 만들기—그 허상과 실상』, 새문사 : 2012,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 2005, 『재당 신라인사회연구』, 일조각 : 2002, 『韓國古代 金石文綜合索引』, 학연문화사 : 1997,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일조각.

의술의 도입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였다.

주제어 : 移動, 移住, 來住, 사회변혁, 신라사, 노동력 확충, 예악 발달, 의술 도입

## I. 머리말

인류의 역사는 인간 이동의 역사였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일별하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역사의 변혁과 발전에는 늘 주민의 이동이 수반되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서양 고대사회의 몰락, 근대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 중국 북방 유목민족의 주기적인 중원 진출과 征服王朝의 출현 등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건 하나 하나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거니와, 그 속에는 항상 인간의 지역적 이동과 이주가 있었다. 인구의 이동은 단순한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을 비롯한 이른바 소프트파워(soft-power)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한국고대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金庠基 선생의 東夷族 이동설은 잘 알려져 있거니와,<sup>1)</sup> 중국 대륙 서북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동이족이 한반도에 안착해 한민족의 뿌리를 형성하였고, 만주 북쪽에서 남하한 부여족의 일파가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하였으며, 또 다른 북방 유이민들이 경주 일대에 내려와 토착민을 제압하고 신라를 건국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나름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

이처럼 한국고대사 속에는 크고 작은 주민 이동이 수없이 이루어졌다. 특히 삼국 가운데 비교적 사료가 풍부한 신라사를 살펴보면, 신라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종래 우리는 신라인의 이동과 이주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비록 신라인의 해외 이주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기는 하나, 그것마저도 중국으로 진출한 신라인에 주로 관심을 집중하였다. 필자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sup>2)</sup> 사실 신라사의 발전과 변혁이라

1) 金庠基, 1948, 「韓·濊·貊 移動考」 『史海』 1 : 1954, 「東夷와 淮夷·徐戎에 對하여」 『東方學志』 1, 1~31쪽; 1955, 「東夷와 淮夷·徐戎에 대하여(續完)」 『東方學志』 2, 1~35쪽.  
2) 권덕영, 2005, 『재당 신라인사회연구』, 일조각.

는 측면에서, 신라인의 해외 이주는 외부인의 신라 到來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덜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부인의 신라 도래라는 관점에서 신라사의 주민 이동 문제를 개관해보고자 한다.

## II. 移動, 移住, 來住

독일의 역사학자 클라우스 바데(Klaus J. Bade)는 인간을 이동하는 사람이란 뜻의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로 규정하였다.<sup>3)</sup> 그가 말한 Migrans는 移動 혹은 移住, 곧 Migration에서 파생된 용어로,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삶을 영위해온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이동이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일 수 없을뿐더러, 定住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이러한 표현은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이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인구의 이동은 특정 지역에 살던 종족 혹은 주민이 어떤 요인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주민 이동의 지역적 범위와 유형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개의 범주로써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동의 형태와 원인의 측면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가 아니면 불가항력의 타의에 의해 이동했는가에 따라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고, 목적과 원인에 따라 정치적 압박과 전쟁 등에 의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수탈과 억압 혹은 수입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 추구 등의 경제적 요인, 인종과 性的 차별 등의 사회적 요인, 종교적 박해와 새로운 문화를 회구하는 등의 문화적 요인, 그리고 기후와 植生 변화에 따른 자연 환경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의 집단적 이동과 소규모의 개별적 이동으로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역사 속의 주민 이동을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3) Klaus J. Bade, 1994, 『Homo Migrans Wanderungen aus und nach Deutschland: Erfahrungen und Fragen』; 황혜성, 2011, 「왜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인가?」 『歷史學報』 212, 13쪽에서 재인용.

混淆되어 나타나므로 어느 한 가지 원인 혹은 하나의 형태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동에는 시작점과 종착점, 곧 떠난 곳과 안착한 곳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 살던 ㉡라는 사람 혹은 집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지역으로 이동하여 안착했다면, ㉠은 이동의 시작점이고 ㉢은 이동의 종착지이다. 이처럼 ㉡가 ㉠지역을 떠나 ㉢지역으로 가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으로 移動(Migration)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Migration은 어느 지역(㉠)으로부터의 유출과 또 다른 지역(㉢)으로의 유입을 동시에 포괄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 ㉢을 각각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전혀 상반된 移動이 된다. 즉 ㉠의 입장에서는 본거지를 ‘떠나는’ 이동이고 ㉢의 입장에서는 목적지에 ‘들어오는’ 이동이 되는 셈이다.

영어 사용권에서는 떠나는 이동과 들어오는 이동을 각각 emigration과 immigration이라 하여 인간의 이동 양태를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떠나는 이동과 들어오는 이동이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보편적 용어가 아직 없고, 다만 移住 혹은 移民이란 말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동을 포괄하고 있다. 최근 고구려사에서의 이주 문제를 연구한 정호섭 교수는 “고구려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주(migration)라는 측면에서 외국으로의 이주(emigration)와 외국으로부터의 이주(immigration)라는 양 측면을 이주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라 하여,<sup>4)</sup> ‘移住’라는 말로 서로 상반된 이동 양태, 곧 나가는 이동과 들어오는 이동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모든 이동 행위를 포괄하였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지역적 이동을 ‘移住’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없다. 특히 외부인의 到來라는 관점에서 신라의 주민 이동 문제를 살펴보려는 본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주민 이동의 상반된 두 개념, 곧 떠나는 이동과 들어오는 이동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잠정적으로 각각 移住(emigration)와 來住(immigration)라 칭하고자 한다.

사실 ‘떠나는 이동’을 移住라 하는 데는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4) 정호섭, 2017, 「高句麗史에 있어서의 이주(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 『先史와 古代』 53, 138쪽.

‘들어오는 이동’을 來住라 표현한 데는 다소 생소한 감이 없지 않다. 전근대 중국의 여러 왕조는 사방의 이민족들이 중국에 들어와 중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來化人 혹은 化外人이라 하였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부 지역에서 들어와 안착한 사람을 渡來人이라 하고 또 감자나 고추, 호박 등과 같이 외국에서 들어온 작물을 渡來作物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근대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외부로 나가 떠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流民 혹은 流移民이라 칭하고 있다.

사실 來化 혹은 化外는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적 가치관이 투영된 용어이고, 渡來는 섬나라 일본의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流移民은 외부지역에서 수동적으로 떠밀려 흘러 들어왔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정치적 망명이나 귀순 혹은 종교 전파를 위한 도래와 같은 목적지향적인 수많은 주민 이동까지 포괄하는 용어가 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來化, 化外, 渡來, 流移는 들어오는 모든 형태의 이동, 곧 immigration의 보편적 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반면 來住는 전근대 한국 문헌에서 널리 사용하던 용어이다. 예를 들면 『三國遺事』(권3)에서 慈藏이 월정사를 창건한 다음에 신효거사가 와서 거주하고 이어서 수다사 유연장로가 와서 거주한 것을 각각 “次信孝居士來住”와 “後有水多寺長老有緣來住”라 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권3)에서 회양산 兢讓和尚이 伯嚴寺에 와서 10년 동안 거주한 것을 “曦陽山兢讓和尚來住十年”이라 하였다.<sup>5)</sup> 여기서는 비록 국가나 종족 간의 이동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 거주하는 것을 來住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immigration은 移動(들어오다)과 定着(거주하다)이란 서로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는데, 來住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외부지역에서 이동해 들어와 정착해 살아가는 행위를 일괄 來住라 칭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람의 이동은 특정 지역에 살던 종족 혹은 주민이 집단적 혹은 개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지역’은 종족 또는 국가를 단위로 한 일정 영역(territory)이고, ‘거주’는 그 지역에 안착하여 생업에 종사하며 永住(permanent residence)에 준할 정도로 장기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移住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거주하는 것이고, 來住는 다른 지역

5) 『三國遺事』 권3, 臺山月精寺五類聖衆 ; 같은 책 권3, 伯嚴寺石塔舍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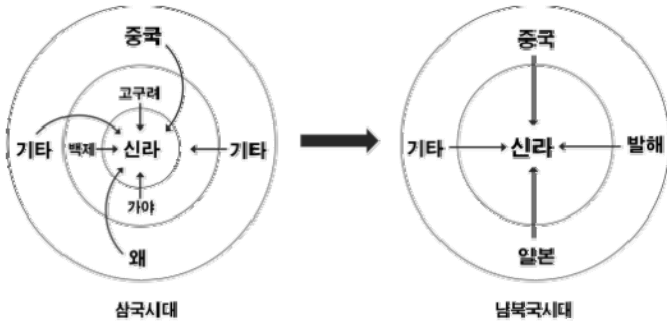
에서 옮겨와 거주하는 것이다. 신라를 중심으로 할 경우, 移住는 신라에서 다른 나라 혹은 지역으로 옮겨가 생업에 종사하며 영주에 준할 정도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고, 來住는 그와 반대로 다른 나라 혹은 외부 지역에서 신라로 들어와 역시 영주에 준할 정도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 Ⅲ. 외부인의 신라 내주

신라의 역사는 외부인의 신라 來住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三國史記』(권1) 신라본기 첫머리에, 신라 건국 이전에 이미 북방 고조선에서 내려온 유민이 경주 분지에 6촌을 형성해 살다가 후에 赫居世를 왕으로 추대해 나라를 건국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후 북쪽의 중국과 고구려, 남쪽의 가야와 왜, 서쪽의 백제에서 외부인들이 파상적으로 신라에 來住하였다. 그러한 외부인의 신라 내주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자발적으로 신라에 왔는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 來住했는가에 따라 자발적 내주와 강제적 내주로 나눌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한 내주로 나눌 수 있으며, 어느 나라 혹은 지역에서 왔는가에 따라 중국, 고구려, 백제, 일본(왜), 가야,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시기에 따라 上代, 中代, 下代 혹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라는 7세기 후반의 이른바 삼국 통일을 계기로 기존의 고구려 일부와 백제 땅이 신라 영토가 되었다. 그에 따라 신라 내주의 대상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즉 삼국시대에는 중국과 왜는 물론 고구려, 백제, 가야인도 신라 내주의 대상이었으나, 남북국시대에는 이들 삼국이 신라로 통합됨으로써 중국과 일본 그리고 새로 등장한 발해와 기타 해외 지역만이 내주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외부인의 신라 내주를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편리할 듯하다.

우선 신라 건국초기에는 북방과 남방에서 경주에 來住하여 신라를 건국하고 또 일부는 지배세력을 형성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고조선 유민들이 신라를 건국하였고, 왜에서 바다를 건너온 瓠公은 탈해왕 때 大輔로 활동하였으며, 왜국 동북쪽 1천리에 있다는 多婆那國 혹은 龍城國에서 바다를 통해 금관국을 거쳐 신라에 온 脫解는 남해왕의 사위가 되고 또 대보를 거쳐 후에 왕이 되었다.



〈그림 1〉 신라 來住 대상의 변화

이후 백제, 고구려, 가야, 낙랑 등지에서 주민들이 속속 신라에 來住하였다. 유리왕 14년(37)에 낙랑인 5천명과 帶方人이 함께 신라에 집단 투항하여<sup>6)</sup> 6부에 분산 거주하였고, 나물왕 18년(373)에 백제 禿山城 성주가 주민 300명을 이끌고 항복하여 역시 6부에 나누어 살았다. 그리고 비처왕 때 승려 阿道, 법흥왕 때 승려 墨胡子가 고구려에서 신라로 와 거주하며 불교를 전하였고,<sup>7)</sup> 법흥왕 19년(532)에 금관가야의 왕 金仇亥가 왕비와 세 아들 곧 奴宗, 武德, 武力을 데리고 신라에 투항해 왕도에 살았다. 뿐만 아니라 진흥왕 6년(545)에 고구려 승려 惠亮이 신라에 와서 국통(혹은 승통)이 되었고, 같은 왕 12년에 대가야의 악사 于勒이 제자 尼文과 함께 신라에 귀순하여 國原京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진흥왕 23년(562)에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많은 포로를 붙잡아 신라로 돌아왔는데, 그중 200명을 斯多舍에게 내려주었다고 한다.<sup>8)</sup>

다음의 통일전쟁기에는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이 신라에 내투하는 경우가 많

- 6) 『삼국유사』(권1) 奇異(1) 樂浪國條에, 髡禮王 곧 유리왕 4년(27)에 고구려왕 無恤王이 낙랑을 멸망시키자 그 나라 사람과 대방인이 신라에 來投했다고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의 관련 내용을 비교해보면, 유리왕 4년은 곧 유리왕 14년의 잘못된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에 등장하는 낙랑과 대방의 구체적으로 성격에 관해서는 상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 7) 『三國遺事』(권3) 阿道基羅條에서는 목호자를 아도의 별명이라 하여 목호자와 아도를 동일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海東高僧傳』(권1)에서는 목호자를 黑胡子로 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에 따라 목호자와 아도를 별개인으로 간주한다.
- 8) 『삼국사기』 권4, 진흥왕 23년. 한편 『삼국사기』(권44) 斯多舍傳에는 이때 사다함이 加羅人 300인을 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았다. 무열왕 7년(660) 황산벌에서 백제 결사대를 깨트리고 사로잡은 좌평 忠常과 常永 등 20여명과 그후 백제에서 투항한 달솔 自簡, 은솔 武守와 仁守 등에게 각기 관등과 관직을 주어 신라인으로 살게 하였다. 그리고 문무왕 원년(661) 9월에 백제 달솔 助服과 은솔 波伽가 무리와 더불어 항복하자 역시 관등과 관직을 내려주었고, 문무왕 3년(663)에는 백제부흥운동에 참여한 扶餘豐의 아들 忠勝과 忠志 등이 무리를 거느리고 倭人和 함께 항복하였다.

문무왕 때는 동왕 6년(666)에 淵淨土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항복하자 연정토와 그의 부하 24명에게 의복과 식량 그리고 집을 주고 경주와 지방의 州, 府에 안주시켰다. 연정토는 668년 봄에 사신 元器와 함께 당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신라 來住人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의 부하를 비롯한 휘하 백성들은 來住人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668년 고구려 토벌 후 문무왕은 고구려 포로 7천명을 이끌고 경주로 돌아왔고, 문무왕 10년(670)에 安勝이 4천여 戶의 무리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자 그들을 金馬渚에 안치시키고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으며 680년에 왕의 여동생과 혼인시켰는데, 안승과 함께 신라에 투항한 대형 劍牟岑, 소형 多式, 태대형 延武 등도 신라에 안착해 살았을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와 백제는 더 이상 신라의 내주 대상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자 이주를 위한 국가 간의 주민 이동이 크게 줄었다. 그 결과 외부에서 신라로 來住한 사례가 종전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였다. 현전하는 자료에 의거하는 한, 신문왕 즉위 이후 약 200년 동안 한 건의 내주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하대 후반에 해당하는 헌강왕 때 處容이 신라에 내주하였다. 『삼국사기』(권11)와 『삼국유사』(권2)에 의하면, 헌강왕이 동해 開雲浦에 갔다가 생김새가 해괴하고 옷차림이 괴상한 사람 4명 혹은 7명을 만나 그들을 데리고 경주로 돌아와 신라 여인과 혼인해 살도록 했다고 한다. 처용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교역에 종사하던 아라비아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sup>9)</sup>

한편 8세기 중엽에 일어난 安史의 난과 그 이후에 이어진 중원대륙의 각종 반란으로 당이 혼란에 빠지자, 그것을 피해 신라로 내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2005년 중국 洛陽에서 발견된 북송 楊畏妻王氏墓誌에 의하면, 왕씨부인의 고조 王彥英과 증조 王仁侃 부자는 중국의 혼란을 피해 가족들을 이끌고 신라로 건너

9) 李龍範, 1989, 「處容說話의 一考察-唐代 이슬람 상인과 신라」 『震檀學報』 32, 25~34쪽.

가 국정에 참여했다고 한다.<sup>10)</sup> 그 시기는 대략 886~897년 경이었다.<sup>11)</sup>

왕언영 외에도 당나라 말기의 극심한 혼란으로 다수의 중국인들이 신라에 來住했을 것이다. 860년에 裘甫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책사 王輅가 “상황이 급하면 바다의 섬으로 도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계책이다[急則逃入海島 此萬全策也]”라 하였고, 토벌군 사령관 王式이 “적도들이 궁핍해지면 틀림없이 바다로 도망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단시일 내에 붙잡을 수 없다[賊窘且飢 必逃入海 入海則歲月間未可擒也]”라 하였다.<sup>12)</sup> 일찍이 李敬業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불리해지자 潤州에서 바다를 통해 고려 곧 신라로 달아나려했듯이[將入海逃(奔)高麗],<sup>13)</sup> 구보 일행이 ‘바다로 도망간다’는 것도 신라를 비롯한 동쪽 땅으로 달아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비록 이들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으나, 앞의 사례들은 당시 중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의 탈출구로서 신라 이주를 하나의 방편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선각대사 迺微와 낭공대사 行寂의 선조는 원래 중국 사람이었으나 신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귀화하여 각각 武州와 京萬河南에 안착하였고, 범경대사 慶猷의 먼 조상은 일찍이 바다를 건너 신라[菟郡]에 와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진감선사 慧昭의 선조는 일찍이 수나라 군사로서 고구려 침공에 참여하였다가 항복해 고구려에 살다 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金馬郡에 안착했다고 한다.<sup>14)</sup> 이상의 신라 내주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외부인의 신라 내주

연번	시기	내주인	원거주지	내주 요인	신라 행적	기타
①	기원전 1세기	고조선 유민	고조선	피난	6촌 형성, 신라 건국	
②	혁거세왕대	瓠公	왜		왕도 거주, 大輔	해로

10) “高祖避五季之亂 乘桴游海南 新羅國王一見奇之 命以相國”

11) 趙振華, 2006, 『北宋楊畏妻王氏墓誌與王彥英相國新羅』 『東北史地』 제5기, 27쪽.

12) 『資治通鑑』 권250, 咸通 원년 3월 및 4월.

13) 『新唐書』 권93, 李敬業傳; 『資治通鑑』 권203, 광택 원년 11월.

14) 『無爲寺先覺大師塔碑銘』; 『太子寺朗空大師塔碑銘』; 『五龍寺法鏡大師塔碑銘』; 『雙谿寺眞鑒禪師塔碑銘』.

③	남해왕대	脫解	다과나국 (龍城國)		大輔, 신라왕	해로
④	유리왕 14 (37)	樂浪과 帶方人	낙랑	투항	6부 거주	낙랑인 5,000인
⑤	나물왕 18 (373)	禿山城主 등	백제	투항	6부 거주	300인
⑥	비처왕대	阿道, 시종 3인	고구려	전교	一善郡 毛禮家 도래	
⑦	법흥왕대	墨胡子	고구려	전교	一善郡 毛禮家 도래	
⑧	법흥왕 19 (532)	金仇亥 등	금관가야	투항	왕도 거주, 식읍 경영	
⑨	진흥왕6 (545)	惠亮 등	고구려	귀순	승통(국통)	
⑩	진흥왕12 (551)	于勒, 尼文	대가야	귀순	中原京 거주, 가야금 전래	
⑪	진흥왕 23 (562)	대가야 백성	대가야	포로	일부 良民化	斯多舍 포상 200명
⑫	무열왕 7 (660)	忠常, 常永 등	백제	포로	관등, 관직 수여	
⑬	무열왕 7 (660)	自簡, 武守, 仁守	백제	포로	관등, 관직 수여	
⑭	문무왕 1 (661)	助服, 波伽 등	백제	투항	관등, 관직 수여	
⑮	문무왕 3 (663)	扶餘忠勝, 扶餘 忠志, 倭人 등	백제, 왜	투항	[왕도 거주]	
⑯	문무왕 6 (666)	淵淨土 부하와 백성	고구려	투항	왕도, 지방 州縣 안치	12성 763호 3,543명
⑰	문무왕 8 (668)	고구려인	고구려	포로	신라 안치	7,000명
⑱	문무왕 10 (670)	安勝 등	고구려	투항	책봉, 관직 수여, 安置	劔牟岑, 多式, 延武, 4,000여호
⑲	현강왕 5 (879)	處容 등	아라비아	교역, 표창	왕도 안치, 혼인	해로
⑳	진성왕대	王彥英, 王仁侃 등	중국 福建	피난	국정 참여	해로
㉑	미상	先覺大師 선조	중국(당)	귀순 (사절)	武州 거주	해로
㉒	미상	朗空大師 선조	중국(당)	귀순 (사절)	京萬 河南 <sup>15)</sup> 안착	해로
㉓	미상	慶猷大師 선조	중국	귀순	신라[兔郡] 거주	해로
㉔	미상	眞鑒禪師 선조	중국(수)	투항	金馬郡 안착	고구려 경유

#### IV. 來住 양상과 의미

지금까지 확인된 외부인의 신라 來住 사례는 24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신라 내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삼국시대 신라는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신라인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겠으나, 신라 역시 상대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붙잡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사로잡았다'고만 할뿐 신라로 데려와 신라인으로 살게 했다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진흥왕 때 대가야를 멸망시킨 후 사로잡은 포로들의 경우처럼 붙잡힌 포로들은 대부분 신라로 끌려와 생활했을 것이다. 전쟁 포로의 강제 내주뿐만 아니라 자발적 내주 사실도 기록에서 다수 누락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비록 제한된 자료이긴 하나, 앞 장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외부인의 신라 내주 양상과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시기적으로 기원 전후의 신라 건국기, 7세기 중엽을 전후한 통일전쟁기, 그리고 9세기 후반의 신라 쇠망기에 외부인의 신라 내주가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는 모두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 변혁기였다. 전쟁과 사회 변혁기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난 것은 세계사의 공통된 현상이거니와, 신라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원전 1, 2세기 중국 대륙에서는 秦의 虐政과 진·한 교체기의 혼란, 그리고 뒤이은 한 무제의 고조선 침략으로 수많은 유민이 전란을 피해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경주 분지에 6촌을 형성하고 신라를 건국한 고조선 유민이 그러한 이동의 한 갈래였다. 그리고 삼국 통일전쟁기 동안 많은 백제인과 고구려인들이 신라에 내주하였고, 9세기 후반 당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바다를 건너 신라로 내주하였다.

둘째, 내주한 사람들의 원 거주지와 출신 성분, 그리고 내주한 루트가 다양하였다. 원 거주지역의 경우 북쪽으로는 고조선의 옛 땅 요동과 낙랑 및 대방지역, 남쪽의 왜국과 多婆那國 혹은 龍城國, 서쪽의 백제와 장강 이남지역을 포함한 중국,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표착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슬람 세계로부터의 내주가 그것이다. 그리고 내주한 사람으로는 유민, 승려, 기예인, 투항 왕족, 관리, 일반 백성, 포로, 사절 등 다양하였으며, 내주한 루트는 육로와 해로를 가리지 않

15)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1)』(1994, 가산문고, 377쪽)에서는 京萬 河南을 지금의 경남 河東으로 비정하였다.

았다.

외부인의 신라 내주는 신라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한 대규모의 강제 이주 혹은 자발적 내주로 인해 노동력이 증가함으로써 생산량이 늘어났고, 또 그들을 기반으로 군사력도 증강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라는 인접국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포로를 붙잡아 국내로 데려왔다. 관련 기록에는 ‘사로잡거나 죽인 사람이 매우 많았다’ 혹은 ‘몇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등으로 대소 애매하게 표현했으나,<sup>16)</sup> 삼국시대 신라에 포로로 잡혀 강제로 내주한 사람은 수만 혹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來投한 낙랑과 대방인, 백제인, 그리고 淵淨土와 安勝이 이끌고 온 고구려인을 합하면 역시 수천 혹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sup>17)</sup> 그들은 신라의 노동력과 군사력 증강에 보탬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금관가야 왕족의 내주는 신라의 군사력 확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金庾信으로 대표되는 금관가야 내주인 후손들이 이끈 군사력은 신라 삼국통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중대왕실의 건설과 유지의 무력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阿道와 墨胡子の 내주는 신라 불교전래의 서막을 열었고, 법흥왕대 불교공인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아도와 묵호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천착할 필요가 없거나, 그들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들어오는 초입에 해당하는 一善郡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불교의 존재가치를 처음 신라 왕실과 백성들에게 홍보하였다. 비록 당대에는 그들의 홍보가 가시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으나, 그것이 단초가 되어 이후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불교 공인 후 신라 불교가 점차 발전하였는데, 그것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진흥왕 12년(551) 신라에 내주한 고구려 승려 惠亮이었다. 진흥왕 12년에 혜랑이 거칠부와 함께 신라에 도래하자 진흥왕은 그를 국통(혹은 승통)에 임명하고 불교교단 정비와 자신의 정치지문을 의뢰하였다. 신라 僧官制는 사실 이로부터 체계화되

16) 婆娑王 17년(96)에 ‘가야인을 공격하여 사로잡거나 죽인 사람이 매우 많았다’라 하였고, 奈解王 29년(224)에 ‘백제와 싸워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라 하였으며, 助賁王 3년(232)에 ‘왜인을 추격하여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라 하였고, 眞興王 23년(562)에 ‘백제군을 공격하여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라 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17) 최희준, 「신라 중대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과 그 공과」(2019, 『신라사와 유이민(immigrants)』, 신라사학회 전국역사학대회학술회의 발표자료집, 56~57쪽)에서, 안승이 건너리고 來投한 4,000호는 대략 1만 8천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있거니와,<sup>18)</sup> 그는 百高座會와 八關會 같은 호국법회를 주관하고 고구려식의 북방 불교를 신라에 이식하였다. 진흥왕대의 불교정책은 이후 신라 불교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러한 신라불교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혜량이었다.<sup>19)</sup>

진흥왕 때 대가야에서 신라로 내주한 于勒 역시 신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우륵은 대가야 省熱縣 사람으로, 대가야가 어지러워지자 가야금을 가지고 제자 尼文과 함께 신라에 귀순하였다. 진흥왕은 그를 國原京에 안치하고 注知, 階古, 萬德을 보내 가야금 연주와 노래 그리고 춤을 배우게 하였으며, 후에 그것을 신라의 제반 행사에 사용하는 공식 궁중음악인 大樂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우륵이 신라에 가야금과 악곡을 전함으로써 신라 음악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악사 우륵의 신라 來住에서 비롯되었다.

處容의 신라 내주도 신라사의 전개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 처용의 실체에 관해서는 울산 호족의 자제, 이슬람 상인, 현강왕의 서자 곧 효공왕이라는 등의 여러 주장이 있다.<sup>20)</sup> 신라 내주를 다루는 본고에서는 처용을 신라에 도래한 이슬람 상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중세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adhibah)는 『諸道路 및 諸王國志』에서 이슬람교도 가운데 금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신라에 영구 정착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듯이, 무슬림들이 중국을 거쳐 신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그들은 대부분 교역 상인으로, 주요 교역품은 향료와 약재였다.<sup>21)</sup> 그런데 처용설화에서는 처용을 疫神 퇴치의 상징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렇다면 처용설화는 그들이 가지고 온 서양의 약재 혹은 의술이 신라사회의 疫病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처용의 내주는 신라 의학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뿐더러 전염병 퇴치를 통한 사회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문무왕, 2019, 「삼국시대 승관제 성립을 통해 본 국가불교」 『新羅文化』 54, 132~134쪽.

19) 朱甫暉, 2014, 「거칠부의 出家와 出仕」 『韓國古代史研究』 76, 191~192쪽.

20) 李佑成, 1969,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을유문화사; 李龍範, 1989, 「處容說話의 一考察-唐代 이슬람 상인과 신라」 『震檀學報』 32, 25~34쪽; 金基興, 2001, 「신라 處容說話의 역사적 진실」 『歷史教育』 80, 123~148쪽.

21) 金昌錫, 2006,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44, 2006, 119쪽.

## V. 맺음말

인간이 지구상에 그 존재를 드러낸 이후, 그들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였다. 오늘날 멕시코의 미국 불법 이민과 최근 급증한 한국의 '이주노동자'가 그러한 이동의 한 형태이거나, 한국고대사회에서도 외부 세계와의 주민 이동이 활발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학계는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동, 곧 來住(immigration)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조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移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외부인의 신라 내주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여 來住人들의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 시도하였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의 주민 이동은 사회변혁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의 역사가 고조선 유민의 신라 내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신라사에서도 주민 이동과 사회변혁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 그리고 파상적으로 이어진 외부인의 신라 내주는 노동력 확충과 군사력 증강, 불교 수용과 예악의 발달, 그리고 새로운 의술의 도입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였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외부인의 신라 來住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전하는 사례가 적을뿐더러 내용 역시 다양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신라 來住 관련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결과 신라 내주인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추후 보다 광범위한 사료 탐색과 精緻한 연구가 뒤따른다면, 이 문제는 신라사를 포함한 한국고대사를 보다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어젠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無爲寺先覺大師塔碑銘」, 「太子寺朗空大師塔碑銘」, 「五龍寺法鏡大師塔碑銘」, 「雙谿寺眞鑿禪師塔碑銘」, 「楊畏妻王氏墓誌銘」

### 2. 단행본 및 저서

권덕영, 2005, 『재당 신라인사회연구』, 일조각.  
李智冠,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1, 가산문고.

### 3. 논문

金基興, 2001, 「신라 處容說話의 역사적 진실」 『歷史教育』 80.  
金庠基, 1948, 「韓·濊·貊 移動考」 『史海』 1.  
金庠基, 1954, 「東夷와 淮夷·徐戎에 對하여」 『東方學志』 1.  
金庠基, 1955, 「東夷와 淮夷·徐戎에 대하여(續完)」 『東方學志』 2.  
金昌錫, 2006,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44.  
문무왕, 2019, 「삼국시대 승관제 성립을 통해 본 국가불교」 『新羅文化』 54.  
李龍範, 1989, 「處容說話의 一考察-唐代 이슬람 상인과 신라」 『震檀學報』 32.  
李佑成, 1969,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을유문화사.  
정호섭, 2017, 「高句麗史에 있어서의 이주(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 『先史와 古代』 53.  
趙振華, 2006, 「北宋楊畏妻王氏墓誌與王彥英相國新羅」 『東北史地』 제5기.  
朱甫暎, 2014, 「거칠부의 出家와 出仕」 『韓國古代史研究』 76.  
최희준, 2019, 「신라 중대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과 그 공과」 『신라사와 유이민 (immigrants)』, 신라사학회 전국역사학대회학술회의 발표자료집.  
황해성, 2011, 「왜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인가?」 『歷史學報』 212.

ABSTRACT

##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Immigrants in the Progress of Silla History

Kwon, Deok-young

The history of mankind was the history of human migration. Humans have moved constantly in pursuit of a better life. However, the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istory always involved the movement of residents. The movement of the Germanic people and the fall of Western ancient society, the periodic invasion of the northern nomadic people into Chinese central plains and the emergence of the conquest dynasty, etc. tell such facts.

The Korean ancient society also actively moved its residents to the outside world. Nevertheless, we have so far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se issues. In particular, there was a lack of efforts to look at our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which is the movement flowing in from the outside. From that point of view, I attempted to find the influence and meaning of Silla history by those who moved to Silla from outside.

As can be seen in the history of the East and the West, large-scale migration of residents has often been the cornerstone of social transformation. Just as the history of Silla began with the immigration of the people of Gojoseon(고조선) to Silla, Silla history also proves to some exten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vement of residents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the continued immigration of outsiders to Silla contributed to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labor, military buildup, the acceptance of Buddhism and the development of etiquette, and the introduction of new medical techniques.

Key Words : human migration, immigration, immigrants, Silla history, social transformation, the expansion of labor, new medical techniques

논문 투고일 : 2020. 11. 2. 심사완료일 : 2020. 12. 4. 게재확정일 : 2020. 12. 15.